

대도시 지역의 주거지위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영광* · 서우석**

The Effects of Housing Status in Metropolis on Subjective Poverty

Young-Kwang Han* · U-Seok Seo**

요약 : 본 연구는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 사이의 불일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2012년) 자료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 사이의 불일치는 지역요인에 영향을 받았으며, 대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객관적 빈곤층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빈곤층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도시의 주관적 빈곤은 가구점유형태에 따른 주거안정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문제와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거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농격차 해소에 못지않게 대도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빈곤문제 해결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인 소득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맞추어야 하나, 주관적 빈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 내의 주거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관적 빈곤층이 늘어날 경우 계층 간의 상대적 이질감 증가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통합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관적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대도시의 주거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빈곤, 주관적 빈곤, 주거, 소득, 대도시정책

ABSTRACT : This study deals with the discrepancy factor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poverty.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2 shows that the discrepancy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poverty i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residents of metropolitan area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roves that housing status exercises an influence on subjective poverty in metropolitan areas. Korea's unique rental system, known as Jeonse, as well as real estate speculation contribute to this influence of housing status on subjective poverty. The results show that for solving the poverty problem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duce income inequality among various types of social groups, but also to enhance housing stability in the metropolitan areas. Housing instability causing subjective poverty may enlarge the possible negative socio-economic effects of the income polarization, while disturbing social integration. Thus, greater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subjective poverty through the effective metropolitan housing policy.

Key Words : poverty, subjective poverty, housing, income, metropolitan policy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Ph.D. Candidate,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교신전자(E-mail: usseo@uos.ac.kr, Tel: 02-6490-2740)

I. 서론

빈곤은 그동안 주로 소득의 부족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개인의 선호와 효용이 상이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이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빈곤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남상호,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차원적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에 대한 관심은 객관적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산, 주거, 건강, 환경, 제도 등 삶의 여러 조건과 차원들에서 나타나는 결핍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나 주관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서병수·권종희, 2013).

다차원적 빈곤의 접근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유엔개발기구(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발간한 Human Development Report(1997)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을 살펴보기 위한 시도로서 다양한 측면의 복지수준을 빈곤지표로서 나타내는 인간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UNDP와 옥스퍼드 대학의 옥스퍼드 빈곤 및 인간개발계획이 공동으로 개발한 다차원적 빈곤지수(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는 단순한 소득을 넘어서 가계차원의 보다 넓은 개념의 빈곤을 의미하는 새로운 빈곤지수로서 지역, 국가 및 국제비교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빈민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UNDP, 1997). MPI 지수는 국내에도 소개되어 김경혜(2011)와 최근 외(2011)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다차원적 빈곤특성 분석에 사용되었다.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은 주관적 빈곤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되었다. Luz and Andrés(2013)은 콜롬비아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다차원적 빈곤의 구성요소들을 지수화(MPI)하여 주관

적 빈곤과의 상관성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으며, Bernard and Ada(2006)는 라이프의 범위를 구분하여 빈곤을 몇 개의 타입으로 나눈 뒤, 만족도에 따라 주관적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Herrera et al.(2006)은 페루와 마다가스카르의 두 개발도상국의 비교분석을 통해 삶의 기준에 대한 가구들의 주관적 평가요소에 대해 검증하였고, Kingdon and Knight(2006)은 기본적 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등을 대리변수로 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 밖에 주관적 웰빙 또는 행복감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는데, Frey and Stutzer(2002), Helliwell(2002), Easterlin(2001) 등은 소득과 주관적 웰빙 또는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소득이 주관적 웰빙 또는 행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와 유사한 국내 연구로서 신명호(2003)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사회문화적·심리적 소외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며, 빈곤은 경제적 결핍이라는 단일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심리적 소외 등이 결합된 다차원적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소득수준에 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도 다차원적 빈곤측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이 상층 1.9%, 중간층 51.4%, 하층 46.7%로 나타났다. 1988년 사회조사에서 중간층이 60.6%, 하층이 36.9%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략 10%p 규모의 하향이동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주관적 측면에서의 다차원적 빈곤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원인에 주목하면서 주관적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주관적 빈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주요 변수 구성의 방법을 소개한 후, IV장에서는 주관적 빈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V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요약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주관적 빈곤의 개념과 측정

주관적 빈곤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각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빈곤감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주관적 빈곤의 측정방법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주관적 빈곤층의 측정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빈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 절대적 빈곤(Rowntree, 1901)과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Townsend, 1979),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빈곤감을 측정하는 주관적 빈곤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Kapteyn et al., 1988).

빈곤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재화와 서비스가 결핍된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심리적 고립감, 상대적 빈곤감, 주관적 빈곤감, 사회·문화적 소외, 정치적 배제, 공간적 격리 등과 같은 다차원적인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신명호, 2003). 따라서 스스로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느낌과 기존의 객관

적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Goedhart et al.(1977)는 빈곤선을 평가하는 방식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정치적 결단에 의한 방식과 객관적 평가에 의한 방식 외에 주관적 방식으로서 본인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한 방식과 대표적 시민(representative citizen)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Kilpatrick, 1973; Rainwater, 1974)을 제시하였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관한 각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내지 평가를 통해 어떻게 빈곤 개념을 설정하고 판단할 것인가이다(김미곤 외, 2009). 주관적인 느낌 내지 평가를 통해 빈곤개념을 설정하고 판단하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설명되어 왔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으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라이덴(Leyden) 방식이 있으며, 이외에도 벨기에의 델릭(H. Deleeck)이 고안한 방식과 카프테인(Kapteyn) 방식 등이 대표적인 주관적 빈곤에 관한 평가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Robert and Bernard, 1991; Kapteyn et al., 1988). 이처럼 주관적 빈곤의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지만, 뚜렷한 기준과 구분에 대한 합의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자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관적 빈곤이 각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의되는 빈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선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측정할 것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적 빈곤의 측정 또한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지표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측정기준과 분류방식에 따른 시도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도시빈곤과 주거지위

빈곤의 문제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사회변화 과정을 수반하면서 도시빈곤문제로 첨예하게 나타났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의 지리적 이동뿐 아니라 삶의 방식의 근대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대규모의 이동을 바탕으로 대도시의 주거환경문제와 고용문제 등 도시빈곤문제를 초래하였다(조명래, 2004).

도시빈곤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시각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의 물질적 결핍을 기준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주거지나 고용 구조를 중심으로 도시빈곤층을 정의하기도 한다(이정봉, 2006). 고용불안정과 저소득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빈민층 거주자를 도시빈곤층으로 보기도 하였으며(장세훈, 2000),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받기 힘들 정도로 경제상태와 주거상태가 취약한 계층을 도시빈곤층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조옥라, 1989). 이처럼 오늘날의 도시빈곤 문제는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주거, 고용, 직업,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도시빈곤문제 또한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 측면이 큰데, 특히 주거의 빈곤은 도시빈곤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직업을 찾는 저소득층의 도시로의 이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무허가주택이나 단칸방의 사글세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도시빈곤층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는 도시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철거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이 시기부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저축을 해도 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졌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2002).

이처럼 도시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주택을 통해서만 접근이 허용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주거 빈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주거공간의 의미보다는 자산소유 및 증식의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사회계층화, 계급갈등의 중심에서 복잡한 역할을 하였고(신진욱·이은지, 2012), 여러 가지 변수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결과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주거에는 물리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데, 주거에서 문화개념을 명시적으로 처음 도입했던 Rapoport(1969)는 주택은 하나의 제도이며 집을 짓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계층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계층과 주거지 분화에 관해 이루어져 왔다(임창호·민범식, 1992).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단위 거주지역의 건설을 통해 동질적 계층을 집합화하고 주거지역의 계층적 분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중간계층은 강남지역으로 집중화하고 중하위계층은 도시 내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역에 주로 거주하거나 수도권 위성도시에 거주하는 등 도시사회구조가 재편성된다고 설명한다. 주택소유의 의미도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의 자가 소유욕은 독립된 생활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려는 반면 중산층은 주택을 통해 명성과 위신을 나타내려 한다(Gross et al., 1980). Cooper(1974)는 주택이 개인이 속한 집단의 감정적 유대의 대상이며 자아의 상징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거와 관련한 속성이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Fogel et al.(2008)과 강성진(2010)은 자가의

소유가 삶의 만족도와 정(+)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Hu(2013)와 Zumbro(2011) 또한 중국과 독일의 경험적 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자가 보유가 긍정적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Han and Hong(2011)은 부동산, 금융, 부채 등의 자산과 달리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이명신·이훈구(1997)는 주택형태는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거점유형태와 주택규모만이 주택만족도변인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택에 관련한 변인 몇 개만을 단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도시의 빈곤문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주거의 빈곤과 관련이 있었으며, 주택은 주거공간의 의미보다는 자산 소유 및 증식의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사회계층화와 계급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가 소유의 여부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지위는 주관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주관적 빈곤수준을 농촌지역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주거지위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①: 도시지역의 주관적 빈곤은 농촌지역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②: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관적 빈곤의 차이는 주거지위의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한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이하 KOWEPS) 7차년도(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KOWEPS는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실태, 사회보장, 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복지수요 및 욕구를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50%씩 추출하여 패널 표본가구를 구축하였으며, 표본추출과정에서 저소득층가구는 향후 패널소실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과대표집하였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의 3가지 대안을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60%¹⁾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였다.²⁾

1) 일반적으로 OECD는 중위소득 40%, 50%,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Eurostat은 60%를 기준으로 저소득을 구분하고 있다(OECD, 2008).
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중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40%	2481	10.0	2489	10.0	3477	13.9
<50%	4016	16.1	3880	15.6	4757	19.0
<60%	5227	22.5	5473	22.2	6128	24.7



〈그림 1〉 주관적 빈곤층의 측정기준

본 연구는 KOWEPS 7차년도(2012년) 가구용 데이터의 개인가구주를 분석단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7차년도 자료는 6차년도(2011년)에 부여된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구가중치와 개인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구가중치는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가중치를 부여하며, 개인가중치만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최현수 외, 2012).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tata 11.1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2. 변수

1) 종속변수: 주관적 빈곤

본 연구에서 주관적 빈곤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소득계층에 대한 주관적 귀속의식 지표는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댁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①하위(하류)층, ②중하층, ③중간층, ④중상층, ⑤상위(상류)층 5 문항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주관적 빈곤은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준거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간층을 준거 집단으로 하여 그 미만의 계층을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주관적 빈곤층으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①하위(하류)층, ②중하층은 주관적 빈곤계층으로, ③중간층, ④중상층, ⑤상위(상류)층은 주관적 비빈곤계층으로 정의될 수 있다(〈그림 1〉).

하지만, 주관적 빈곤층에 대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하층과 중하층만을 주관적 빈곤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완 분석을 통하여 주관적 빈곤층의 범위를 ‘하층’만으로 축소할 경우와 ‘하층’과 ‘중하층’, ‘중간층’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하였을 경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2) 독립변수: 지역규모와 주거지위(가구점유형태, 주택유형)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지역을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이렇게 5개 권역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광역시를 대도시로 묶고, 시는 중소도시로, 군과 도농복합군은 농촌으로 묶어서 지역을 분류하였다. 가구점유형태는 1.자가, 2.전세, 3.보증부월세, 4.월세(사글세), 5.기타로 구성되는데, 월세에 보증부월세와 사글세를 포함하여 ①자가, ②전세, ③월세, ④기타로 분류하였다. 주택유형은 1.일반단독주택, 2.다가구용단독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전체	
		빈도	%
지역규모	대도시	2,378	41.4
	중소도시	1,910	33.3
	농촌	1,444	25.1
가구 점유형태	자가	3,167	55.2
	전세	860	15.0
	월세	1,061	18.5
	기타	644	11.2
주택유형	일반단독	1,708	29.8
	다가구용단독	1,131	19.7
	일반아파트	1,664	29.0
	기타	1,229	21.4
연령	35미만	233	4.0
	35-44	879	15.3
	45-54	1,076	18.7
	55-64	928	16.1
	65이상	2,616	45.6
성별	여자	1,647	28.7
	남자	4,085	71.2
교육수준 (교육년수)	미취학/무학(0)	670	11.6
	초등(6)	1,288	22.4
	중등(9)	730	12.7
	고등(12)	1,616	28.1
	전문대학(14)	373	6.5
	대학(18)	903	15.7
	대학원석사(20)	134	2.3
	대학원박사(25)	18	0.3
혼인상태	기타	2,140	37.3
	유배우	3,592	62.6
직업	관리자	161	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85	10.3
	사무 종사자	393	10.5
	서비스 종사자	213	5.7
	판매 종사자	302	8.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43	19.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82	10.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85	13.0
	단순노무 종사자	642	17.2
	군인	22	0.5
가처분소득(로그)	소수점 4자리(단위: 만원)	5,732	100.00

<표 1> 계속

변수	전체	
	빈도	%
식료품비-가정식비	5,732	100.0
식료품비-외식비	5,732	100.0
식료품비-주류, 담배비	5,732	100.0
광열수도비	5,732	100.0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 가사용품비	5,732	100.0
가구가사용품비-보육료비	5,732	100.0
피복신발비	5,732	100.0
보건의료비	5,732	100.0
교육비-공교육비	5,732	100.0
교육비-사교육비	5,732	100.0
교양오락비	5,732	100.0
교통비	5,732	100.0
통신비	5,732	100.0
기타소비지출	5,732	100.0

주택, 3.다세대주택, 4.연립주택(빌라), 5.일반아파트, 6.영구임대아파트, 7.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8.비거주용건물내주택(상가,공장등), 9.오피스텔, 10.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11.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12.기타로 구성되는데, ①일반단독주택, ②다가구용단독주택, ③일반아파트를 제외한 그 외의 주택유형은 비율이 크지 않아 ④기타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3) 인구학적 배경변수

인구학적 배경변수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가처분소득을 측정하였다. 연령은 생년월일을 나이로 환산하였는데, 중·고령층 응답자 비율이 높고 젊은층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35세 미만 응답자를 하나로 묶었다. 35세부터 64세까지는 10세 단위로 변수화하였다.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치환하여 미취학/무학=0, 초

등=6, 중등=9, 고등=12, 전문대학=14, 대학=18, 대학원석사=20, 대학원박사=25로 연속변수화 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별거, 사별, 이혼, 미혼 등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를 이분화하여 유배우와 기타로 구분하였다. 별거, 사별 이혼 등은 비율이 크지 않아 미혼과 하나의 범주로 포괄했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처분소득은 만 원단위의 연속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분석모형에서는 로그를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³⁾

소비지출은 식료품비(가정식비), 식료품비(외식비), 식료품비(주류, 담배비),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가구가사용품비(보육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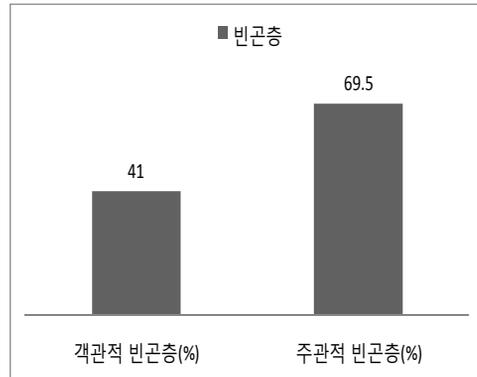
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교육비(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로 분류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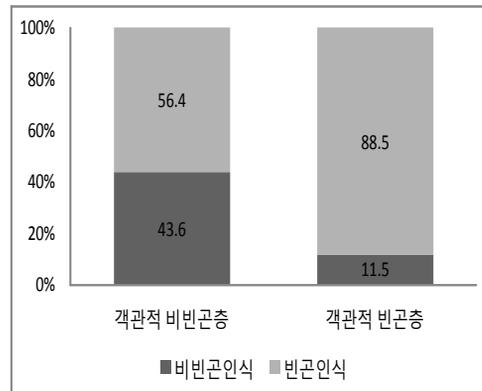
1. 교차분석

1)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비교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차이를 살펴 보면, 객관적 빈곤층이 41.0%로 나타나는데 반해, 주관적 빈곤층은 69.5%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 또한 객관적 빈곤층은 88.5%가 스스로를 빈곤하다고 인식했지만, 객관적 비빈곤층은 43.6%만이 스스로를 빈곤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그림 3>). 이는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이 약 50% 정도만이 일치한다고 주장한 이승기(200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 사람들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지위보다 자신을 낮은 사회계층으로 보며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한 최효미(2008)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 한다. 김유경(2012) 또한 주관적 귀속의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실제 소득계층과 불일치한 현상을 보였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에서 주관적 귀속의식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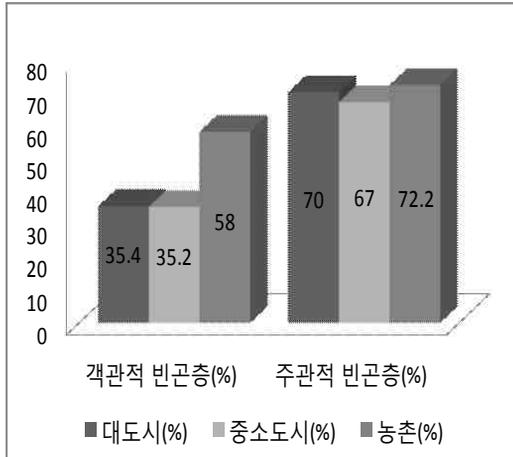
<그림 3> 객관적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빈곤인식 차이

2) 지역규모에 따른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비교

지역규모에 따라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객관적 빈곤층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약 35%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농촌은 약 58%로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주관적 빈곤층의 비율은 대도시 약 70%, 중소도시 67%, 농촌 약 72%로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3) 이는 x와 y의 관계가 절대 값 대신에 상대적인 비율적 변화에 대하여 선형관계가 있을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결정요인들은 소득의 절대값이 아닌 %증가에 대하여 선형관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는 선형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소득의 절대액 대신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여 선형관계로 전환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X와 Y 사이의 관계가 절대값에 대하여 선형이기보다는 비율적 변화(%)에 대하여 선형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변환은 흔하게 사용된다.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은 주관적 빈곤층의 비율이 약 2배 정도 증가했고 농촌지역은 약 20% 정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차이는 도시지역의 주관적 빈곤감이 농촌지역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4〉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지역규모별 비교

3) 지역규모와 주거지위에 따른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비교

지역규모와 주거지위에 따라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가구점유형태별로 보면,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자가 거주자의 객관적 빈곤층이 낮은 반면(대도시: 24.8%, 중소도시: 28.5%, 농촌: 53.5%) 전세 거주자의 주관적 빈곤층은 높게 나타났다(대도시: 75.3%, 중소도시: 65.0%, 농촌: 59.6%). 그러나 농촌은 이와 대조적으로 자가 거주자의 객관적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거주자의 주관적 빈곤층은 낮게 나타났다. 월세거주자의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비율은 농촌>대도시>중소도시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일반단독주택거주자의 객관적 빈곤층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주관적 빈곤층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은 지역규모와 주거지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주관적 빈곤감이 객관적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2. 다변량분석

1) 지역규모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techniques)을 수행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주관적 빈곤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규모를 독립변수로 하고 주관적 소득계층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dichotomous logistic regression)⁴⁾을 수행하였다(<표 3>). 위계적인 방식으로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지역별로 변수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든 통제변수를 고려한 모형3에서 대도시와 농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농촌지역에 비해 대도시지역에서 주관적 빈곤층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농촌: 0, 대도시: .28), 이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주관적 빈곤감이 클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4) 지수함수로 표현되는 로지스틱함수를 선형회귀함수로 만들기 위해 로짓(logit)변형을 취하였다. 로짓변형은 로지스틱함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과 같다.

〈표 2〉 지역규모와 주거지위에 따른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비교(단위: %)

지역규모	주거지위		객관적 빈곤층	주관적 빈곤층	pearson 카이제곱	
					값	자유도
대도시	가구 점유형태	자가	24.8	58.1	116.1	1
		전세	35.2	75.3	62.5	1
		월세	51.0	86.7	52.5	1
		기타	51.3	76.3	16.9	1
	주택유형	일반단독	49.4	72.7	28.5	1
		다가구용단독	46.3	79.8	62.9	1
		일반아파트	17.3	51.2	77.2	1
	기타	40.5	81.0	67.0	1	
중소도시	가구 점유형태	자가	28.5	59.0	103.9	1
		전세	28.7	65.0	46.7	1
		월세	44.1	82.8	17.1	1
		기타	63.2	83.3	23.7	1
	주택유형	일반단독	55.0	73.9	41.0	1
		다가구용단독	42.0	73.5	29.6	1
		일반아파트	19.1	54.8	67.8	1
	기타	37.4	75.5	50.1	1	
농촌	가구 점유형태	자가	53.5	67.2	88.9	1
		전세	21.0	59.6	1.4	1
		월세	56.4	90.1	5.9	1
		기타	80.6	85.0	40.9	1
	주택유형	일반단독	65.9	75.1	104.4	1
		다가구용단독	58.2	68.3	10.3	1
		일반아파트	18.9	51.3	13.1	1
	기타	33.8	73.5	4.4	1	

* 이 표에서 제시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모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로 객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빈곤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

앞선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빈곤은 주거의 빈곤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거지위(가구점유형태와 주택유형)가 주관적 빈곤과 관련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세운 바 있다.

2) 주거지위가 대도시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주거지위가 대도시의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별로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모형1과 모형2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주거지위의 영향을 분석한 후, 지역 간에 주거지위의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3〉 지역규모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변수		주관적 빈곤층		
		모형1	모형2	모형3
지역규모 (농촌=0)	중소도시	-.24***	-.01	.10
	대도시	-.10	.08	.28*
가구 점유형태 (자가=0)	전세		.47***	.54***
	월세		1.17***	.72***
	기타		.97***	.41*
주택유형 (일반단독=0)	다가구용단독		-.25*	-.01
	일반아파트		-.99***	-.17
	기타		-.08	.18
가처분소득(로그)				-.97***
연령				.01
교육년수				-.07***
성별(여자=0)	남자			.32*
혼인상태(기타=0)	유배우			-.14
직업 (관리자=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
	사무 종사자			.19
	서비스 종사자			.65**
	판매 종사자			.5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7**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70**
식료품비-가정식비				-.01
식료품비-외식비				.01
식료품비-주류, 담배비				.01*
광열수도비				-.01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 가사용품비				-.01
가구가사용품비-보육료비				.01*
피복신발비				-.01
보건의료비				.01
교육비-공교육비				.01
교육비-사교육비				.01
교양오락비				-.02***
교통비				-.01
통신비				.02***
기타소비지출				-.01
상수		.95***	.84***	8.19***
표분수		5724	5724	3720
F		10.88***	511.66***	941.24***
결정계수		0.0015	0.0727	0.1916

*p<.05 **p<.01 ***p<.001

분석결과, 대도시의 경우 주거지위만을 통제한 모형1에서는 월세거주자의 주관적 빈곤이 자가나 전세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모형2에서는 전세거주자의 주관적 빈곤이 자가나 월세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모형1보다 모형2에서 월세거주자의 주관적 빈곤이 작게 나타났으며, 전세거주자의 주관적 빈곤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모형2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농촌의 경우도 모형1보다 모형2에서 월세거주자의 주관적 빈곤이 작게 나타났으며, 전세거주자의 주관적 빈곤은 크게 증가했으나 모형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주거지위만을 고려한 모형1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추가로 통제했을 때의 모형2에서 뚜렷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거지위만을 통제한 모형1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모든 지역에서 월세거주자의 주관적 빈곤이 자가나 전세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모형2에서는 유독 대도시만 전세거주자의 주관적 빈곤이 자가나 월세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의 주관적 빈곤이 소득수준이나 직업, 소비지출에 의한 것만이 아니며, 주거 안정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세제도⁵⁾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 연구결과는 더욱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전세난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역은 집값을 추월하기도 했으며,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었다. 또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는 과정에서 전세수요는 더욱 급증하고 있다.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1/5 정도의 가구가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 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시 가구의 1/3 정도가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에 거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도시의 비싼 집값으로 인한 세금과 대출이자의 부담, 그리고 대도시의 주거와 교육환경에 대한 접근성의 혜택 때문에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도시에 유독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보완 분석

주관적 빈곤층의 범위를 달리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완 분석을 시도해 본 결과, 주관적 빈곤층의 범위를 '하층'만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위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나, '하층'과 '중하층', '중간층'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지위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전 계층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층과 중하층에서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부록표〉 참조).

5)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임대제도인데,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심 내 주택물량 부족 현상을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널리 활성화된 제도로서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구입자금의 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택을 구입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주거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김대원·조주현, 2012).

<표 4> 지역규모별 주거지위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변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가구 점유형태 (자가=0)	전세	.63***	.85***	.28*	.25	.24	.85*
	월세	1.14***	.63**	1.06***	.77***	1.72***	1.32**
	기타	.80***	.47	1.14***	.49	.95***	.38
주택유형 (일반단독=0)	다가구용단독	.03	.55*	-.29	-.26	-.69*	-.38
	일반아파트	-.92***	.24	-.80***	-.12	-1.01***	-.57
	기타	.19	.81**	-.10	-.01	-.35	-.22
가처분소득(로그)			-1.16***		-.99***		-.90***
연령			.02**		.01		-.01
교육년수			-.04***		-.08***		-.08***
성별 (여자=0)	남자		-.09		.04		1.09***
혼인상태 (기타=0)	유배우		.17		-.26		-.48
직업 (관리자=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3		.07		.26
	사무 종사자		.72*		-.40		-.01
	서비스 종사자		.57		.48		1.35
	판매 종사자		1.21***		-.19		1.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8		-.81		-.1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9***		.33		-.0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9**		.30		.45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1.07***		.26		.22
식료품비-가정식비			-.00*		.01		-.01
식료품비-외식비			.01		-.01		.01
식료품비-주류, 담배비			.01		.01		.01
광열수도비			-.01		.01		-.01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 가사용품비			.01		-.01		-.01
가구가사용품비-보육료비			.01		.01		.01
피복신발비			-.01*		-.01		.01
보건의료비			.01		-.01		.01
교육비-공교육비			.01		-.01		.01
교육비-사교육비			.01		-.01		-.01
교양오락비			-.01***		-.02***		-.02**
교통비			-.01		-.01		.01
통신비			.03**		.01		.02
기타소비지출			-.01		-.01		-.01
상수		.74***	8.96***	.79***	9.31***	.88***	8.34***
표본수		2373	1471	1909	1323	1442	926
F		283.51***	489.53***	148.18***	359.32***	93.06***	187.66***
결정계수		0.0978	0.2541	0.0612	0.2014	0.0546	0.1573

*p<.05 **p<.01 ***p<.001

V.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의 불일치가 지역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대도시 지역에서 주관적 빈곤이 크게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 중 하나가 가구점유형태임을 실증 분석하였다. 즉, 대도시 지역의 주관적 빈곤감은 주거안정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문제와 투자 대상으로서의 주거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가 주택의 소유여부, 집의 크기와 가격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잣대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대의 빈곤문제를 단순히 소득수준의 차이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도시의 주관적 빈곤감이 심해질 경우 계층 간의 상대적 이질감 증가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통합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처럼 대도시인의 주관적 빈곤감의 증가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도농격차 해소에 못지않게 대도시 주거안정성에 대한 문제해결이 빈곤문제 해결에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객관적인 소득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맞추어야 하나, 주관적 빈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 내의 주거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의 안정성이 대도시인의 주관적 빈곤감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대도시의 주거안정화 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하다. 최근 정부에서 다양한 주거정책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정주형태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

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과 맞물려 계층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빈곤을 측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관적 빈곤층은 준거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상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빈곤층에 대한 분류기준도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객관적 빈곤층과 주관적 빈곤층 간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주관적 빈곤의 요인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빈곤 측정기준에 관한 다차원적인 연구를 토대로 주관적 빈곤요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시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제58권 제1호: 5~36.
- 김경혜, 2011, "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SDI 정책리포트』, 100호: 1~21.
- 김대원·조주현, 2012,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 및 전세금비용 변동의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제20권 제3호: 183~203, 한국주택학회.
- 김미곤·여유진·이상은·정재훈·김계연·양시현·오지현·김민희·임미진, 2009,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2012,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상호, 2014, 「우리나라 다차원적 빈곤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병수 · 권중희, 2013, “한국 다차원 빈곤의 중단분석: 차원계수 방식에 의한 실현능력 접근”, 『사회보장연구』, 29(3): 195~224.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한국도시연구소, 2002, 「서울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삶과 사회정책」.
- 신명호, 2003,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신진욱 · 이은지, 2012, “금융화 시대의 주택체제 변동의 네 가지 경로: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택발평등 구조의 특성”, 『경제와 사회』, 95(가을호): 218~252.
- 이명신 · 이훈구, 1997, “주거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3권 제1호: 97~105.
- 이승기, 2008, “객관적 빈곤가구와 주관적 빈곤가구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3호: 99~116.
- 이정봉, 2006, “빈곤의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고시원 거주 도시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창호 · 민범식, 1992,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개발 및 관리정책」, 국토개발연구원.
- 장세훈, 2000, “외환위기 이전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
- 조명래, 2004, 한국 도시사회의 변모에 관한 역사적 고찰”, 『도시와 빈곤』, 제71호: 1~28.
- 조옥라, 1989, “도시빈민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지역운동”, 『나남』.
- 최균 · 서병수 · 권중희, 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85~111.
- 최현수 · 이현주 · 손창균 · 전지현 · 신재동 외 12인, 2012,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효미, 2008, “중산층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 -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사례”, 『노동리뷰』, 통권 제46호: 73~84.
- Bernard, V. and Ada, F., 2006,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Subjective Poverty*, Presented at The Occasion of The Opening Conference on “The Measuremen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heory and Evidence” of The International Poverty Center (UNDP) in Brasilia, August 29, 2005.
- Cooper, C., 1974, “The House as a Symbol of Self”, California, University, Center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Research, Working paper, no. 120.
- Easterlin, R. A.,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Economic Journal*, 111: 465~84.
- Fogel, S., Smith, M., and Williamson, A., 2008, “Owning a home: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low-income women.” *Journal of Poverty* 12: 102~123.
- Frey, B. and Stutzer, A., 2002, “What can economist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L 2: 402~35.
- Goedhart, T., Halberstadt, V., Kapteyn, A., and Praag, B. V., 1977, “The Poverty Line: Concept and Measurement”,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 503~520.
- Gross, I. H., Crandall, E. W., and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 Han, C. K. and Hong, S. I., 2011, “Assets and life satisfaction patterns among Korean older adults: Latent Class Analysis.” *Social Indicator Research* 100(2): 225~240.
- Helliwell, J. F., 2002,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20: 331~60.
- Herrera, J., Razafindrakoto, M., and Roubaud, F., 2006,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poverty: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adagascar and peru” *Document de Travail DIAL*, DT/2006-1.
- Hu, F., 2013, “Homeowner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in urban china: Does owing a house make you happi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 951~971.
- Kapteyn, A., Kooreman, P., and Willemse, R., 1988, “Some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Subjective Poverty Defini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2): 222~242.

- Kilpatrick, W., 1973,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Poverty Lin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5: 327~332.
- Kingdon, G. G. and Knight, J., 2006, "Subjective well-being poverty versus income poverty and capabilities poverty?", Global Poverty Research Group Center for the Study of African Economie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Oxford.
- Luz, A. and Andrés, C., 2013, *Within the Subjective poverty,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food security: a glance at living conditions of Colombian households*, Prepared by the National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Statistics(DANE).
-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 Rainwater, L., 1974, *Social problems and public policy: Inequality and Justice*, Aldine, Chicago.
-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Published by Prentice Hall.
- Robert, J. F. and Bernard, M. S. Van Praag., 1991, "Subjective Poverty Line Definition", *De Economist*, 139, NR, 3, 1991.
- Rowntree, B. S., 1901,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Macmillan co., London.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Allen Lane and Penguin Books.
- UNDP, 1997, *Human Development Report*, Published for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Zumbro, T.,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ownership and Life Satisfaction in Germany", Provided in Cooperation with Center of Applied Economic Research Münster(CAWM), University of Münster.

원 고 접 수 일 : 2014년 3월 13일
1차심사완료일 : 2014년 5월 2일
2차심사완료일 : 2014년 9월 10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4년 10월 31일

<부록표 1> 지역규모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변수		주관적 빈곤층		
		하층	하층+중하층	하층+중하층+중간층
지역규모 (농촌=0)	중소도시	-.08	.10	.29
	대도시	.31*	.28*	.04
가구 점유형태 (자가=0)	전세	.75***	.54***	.40
	월세	1.31***	.72***	.98
	기타	.51***	.41**	.16
주택유형 (일반단독=0)	다가구용단독	.07	-.01	-.44
	일반아파트	-.56***	-.17	.07
	기타	-.22	.18	.34
가처분소득(로그)		-1.23***	-.97***	-1.95***
연령		-.01	.00	-.03*
교육년수		-.06***	-.07***	-.07*
성별(여자=0)	남자	.23	.32*	.15
혼인상태(기타=0)	유배우	-.36**	-.14	-.37
직업 (관리자=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1	.22	.06
	사무 종사자	.12	.19	.39
	서비스 종사자	.32	.65**	.44
	판매 종사자	.29	.59**	.4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9	-.16	.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1	.71***	.5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0	.67***	1.41***
	단순노무 종사자	.69	.70***	1.56*
	군인	-.76	-.14	-.13
식료품비-가정식비		.01***	-.01	-.01***
식료품비-외식비		.01	.01	-.01
식료품비-주류, 담배비		.01	.01*	.02
광열수도비		-.01	-.01	.02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 가사용품비		-.01	-.01	-.01*
가구가사용품비-보육료비		.01	.01*	.01
피복신발비		-.04***	-.01	.01
보건의료비		.01	.01	.01
교육비-공교육비		.01	.01	-.01
교육비-사교육비		.01	.01	-.01
교양오락비		-.01*	-.01***	-.01*
교통비		-.01	-.01	.00
통신비		.03**	.02***	.03*
기타소비지출		-.01	-.01	-.01
상수		8.40***	8.19***	22.3***
표분수		3.720	3.720	3.720
F		945.58***	941.24***	398.43***
결정계수		0.2360	0.1916	0.3493

*p<.05 **p<.01 ***p<.001

<부록표 2> 지역규모별 주거지위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빈곤층=하층)

변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가구 점유형태 (자가=0)	전세	1.15***	.33	.59
	월세	1.46***	1.4***1	.79*
	기타	.32	.83***	.47
주택유형 (일반단독=0)	다가구용단독	.55	-.13	-.36
	일반아파트	-.21	-.49	-1.12*
	기타	.16	-.35	-.18
가치분소득(로그)		-1.46***	-1.22***	-1.12***
연령		-.01	-.01	-.01
교육년수		-.09***	-.05	-.04
성별(여자=0)	남자	-.11	.39	.61*
혼인상태(기타=0)	유배우	-.15	-.22	-.83**
직업 (관리자=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5	.96	-.95
	사무 종사자	.08	.77	-1.21
	서비스 종사자	-.01	1.40	-1.20
	판매 종사자	.55	.30	-.8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	.32	-1.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5	.86	-1.0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9	.72	-1.07
	단순노무 종사자	.43	1.58*	-.93
	군인	(empty)	1.00	(empty)
식료품비-가정식비		.01**	.01***	.01
식료품비-외식비		.01	.01	.01
식료품비-주류, 담배비		-.01	.01	.01
광열수도비		-.01	.01	-.01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 가사용품비		-.01	-.02	-.01
가구가사용품비-보육료비		-.01	.01	.01
피복신발비		-.02*	-.05***	-.01***
보건의료비		.01	-.01	.01
교육비-공교육비		.01	.01	.01
교육비-사교육비		.01	.01	-.01
교양오락비		-.01*	-.01	-.01
교통비		-.01	-.01	.01
통신비		.02*	.02	.05*
기타소비지출		.01	.01	-.01
상수		10.48***	7.17***	9.93***
표본수		1,468	1,323	916
F		497.25***	316.15***	190.64***
결정계수		0.2969	0.2459	0.1871

*p<.05 **p<.01 ***p<.001

〈부록표 3〉 지역규모별 주거지위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빈곤층=하층+중하층+중간층)

변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가구 점유형태 (자가=0)	전세	.10	1.00	(empty)
	월세	1.52	.45	(empty)
	기타	-.12	.68	.51
주택유형 (일반단독=0)	다가구용단독	.03	-1.52	1.10
	일반아파트	.59	-.63	1.26
	기타	1.29	-1.37	.99
가치분소득(로그)		-2.80***	-1.66***	-1.80*
연령		-.03	.01	-.075
교육년수		-.08	-.04	-.07
성별 (여자=0)	남자	2.22	-.91	-.37
혼인상태 (기타=0)	유배우	-2.92	-.29	.34
직업 (관리자=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1	-.17	4.05*
	사무 종사자	-.04	.27	3.54*
	서비스 종사자	1.35	-.56	1.14
	판매 종사자	.01	.12	2.4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7	.71	2.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1	.70	2.7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51*	.33	(empty)
	단순노무 종사자	.82	1.22	(empty)
	군인	(empty)	-1.54	(empty)
식료품비-가정식비		-.02***	-.02*	.02
식료품비-외식비		.01	-.01	.01
식료품비-주류, 담배비		.06*	.03	-.01
광열수도비		.01	.02	-.01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 가사용품비		.01	-.02*	-.03
가구가사용품비-보육료비		.01	.01	-.02
피복신발비		-.01	.01	-.01
보건의료비		.01	-.01	.01
교육비-공교육비		.01	-.01	-.01
교육비-사교육비		-.01	.01	-.02*
교양오락비		-.01	-.01**	-.01
교통비		.01	.01	-.01
통신비		.02	.09*	.01
기타소비지출		-.01	-.01	.01
상수		30.77***	20.06***	20.87***
표본수		1,468	1,323	668
F		239.42***	156.80***	65.85***
결정계수		0.4498	0.3993	0.3404

*p<.05 **p<.01 ***p<.001